해외 반출 문화재 '환지본처' 바라며…



이상근의
聖寶流轉
㉔ 반출 문화재 막전막후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이름대로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조사를 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매년 4월 1일 해외 반출 문화재 숫자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데 올해는 193,136이라는 숫자가 선명하다.

몇 년 새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매해 1만 점 내외다. 대부분 소장처는 역시 박물관이다. 짐작하겠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반출 유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 파악이 쉽지 않다. 사실 짐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래도 일단 파악된 19만여 점이라는 숫자도 대단하다.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하자면 2019년 기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되어 있는 유물은 불과 6000여 건, 1만 여점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해외 반출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모두 전시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전면 전시 교체를 해도 20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우리 문화재가 유출된 나라 역시 짐작대로다. 19만여 점 중에서 일본으로 4할이 넘는 8만여 점이 반출되었고, 미국으로 5만여 점, 중국으로 1만여 점이 반출되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으로 넘어간 숫자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 유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2019년 한해 기준으로 돌아온 문화재는 '범어사 신중도', '신흥사 제반문(諸般文) 경판' 등 10여 점에 불과했다. 유출 경로가 '불법' 임이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국가 간 협상이라도 가능한데 그런 자료는 유물만큼이나 흔하지 않다.

그래도 이런 와중에 극적으로 돌아온, 또 반출 시도를 하다 중단돼 이 땅에 남게 된 귀중한 성보들이 있다.

돌아온 유물, 경천사지 석탑

흔치 않은 경우지만 갔다가 돌아온 유물이 있다. 협상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여론 때문이었고 그것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이다. 바로 경천사지 석탑이다.(굳이 정식 명칭인 10층을 뺀 이유는 다시 밝히겠다.)

경천사는 고려 시대 개경, 그러니깐 지금의 개성에 지어진 사찰이다. 고려 시대 개경에 있던 사찰 대개가 그렇지만 왕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고려 예종 8년(1113) 겨울 초입에 낙성식이 열렸는데 왕이 직접 낙성식에 행차했다.

지어질 당시부터 거찰의 면모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원나라 간섭기인 1348년 친원 세력들이 기황후의 안녕을 기원하며 세운 아주 이국적인 탑이 세워지면서 사찰의 면모가 한번 일신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설명도 있긴 하다. 조선 대 문헌에는 원의 승상 탈탈이 경천사를 원찰로 삼았고 탈탈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바친 고려인 강융이 원나라에서 공장(工匠)을 데려와 탑을 만들었다는 설이다. 당시에는 탈탈과 강유의 초상화가 절에 남아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여하튼 경천사는 거개의 사찰들이 그렇듯이 조선을 거치면서 폐사가 된다. 1900년 초에는 사찰 터에 오직 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현재 반출된 문화재 19만 여 점
美 · 日에만 문화재 9만점 반출
不法 반출 증거없어 환수 난항

경천사지 석탑, 140조각 난후
日반출… 여론 악화되자 반환
종전후 日人들 반출 못하기도
中유물 전등사 철종 등 한 예

그런데 이 탑은 1907년 1월 순종 결혼식에 일본 특사로 파견되었던 궁내대신 다나카 미스아키(1843~1939)의 표적이 되고 만다. 한 달 후인 1907년 2월 인부 수백 명이 동원되어 석탑의 해체가 시작됐다. 이를 이상히 여긴 동네 사람이 몰려왔다. 그러자 다나카 미스아키는 '고종의 허락을 받았다' 고 거짓말을 했다. 마을 주민들이 '그럴 리 없다' 고 막아서자 급기야 총을 겨눴다. 결국 140여 개로 조각난 탑은 달구지 10여 대에 나눠 실려 현장에서 빠져 나갔고 제물포에서 일본까지 배에 실려 옮겨졌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전개된다. 약 한 달 후인 1907년 3월 7일 〈대한매일신보〉에는 "다나카는 우리 국민을 만만히 봤다. 조선 인민은 그 만행과 모욕에 결연히 항거할 것"이라는 기사가 떴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 출신 언론이 어니스트 베델(1872~1909)이 창간한 신문이다. 국문판과 영문판이 동시 발행되었는데 영문판에도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10여 차례에 걸쳐 기사와 논설을 쏟아내면서 석탑 밀반출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또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애를 썼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경천사지 석탑. 1907년 140여 개로 조각나 일본으로 반출됐으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1918년 우리나라로 되돌아왔다.

이후에는 고종의 '밀사' 였던 호먼 허버트(1863~1949)가 움직였다. 일본의 독립성향 신문이었던 〈재팬 크로니클〉에 두 차례에 걸쳐 석탑 반출이 문화 파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기사를 르포 형식으로 게재했다. 이 기사를 기반으로 그해 6월 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가자 일본은 위기감을 느꼈다.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 이제 '공식적' 으로 병탄을 하려고 할 무렵이었는데 국제 여론이 움직이자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조선의 초대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일본에 "석탑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건 1918년 11월이었다. 포장된 상태 그대로였다고 한다. 폐사된 절에 다시 갈 수 없으니 경복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140여 개로 조각조각 난 탑을 복원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1960년쯤에 이르러 조각을 맞춰 다시 세웠으나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지으며 옮겨갈 때 설계 자문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대 벨란카 교수가 '풍화 작용으로 석재 표면의 균열이 심해 실내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1995년 해체해 10년 간 보존 처리를 마친 후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이전하면서 박물관 안쪽 입구에 옮겨졌다.

그런데 현재 학계 일부에서는 이 탑을 10층이 아니라 13층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 3단을 기단부로 보고 위에 10단만을 탑으로 보는데 조선 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3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 13층 석탑의 예가 없는 건 아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유물로는 보현사 13층 석탑이 유명하고 남한에 남아 있는 유물로는 경주 정혜사지 13층 석탑이 유명하다. 물론 탑은 위로는 홀수로 세우니 10층이 아니라 13층 석탑이 맞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층 석탑의 예가 없는 것도 또 아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그렇다. 경천사지 석탑처럼 기단부를 세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지도 않다. 다만 옛 기록에 경천사에 13층 석탑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으니 다시 살펴봐야 할 일이다.

반출 될 뻔한 유물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약탈해간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고려불화' 를 들 수 있다. 전쟁 와중이었고 수송이 만만치 않았으니 무거운 것보다는 쉽게 소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가져갔다.

하지만 300여 년이 지나고 일본이 다시 이 땅에 점령군을 왔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 곳곳에 철도가 세워졌고 한반도와 일본을 오고가는 선박도 커졌다. 물론 고려청자처럼 작은 것도 노렸지만 정원 꾸미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에게 탑과 불상 같은 석조물은 군침을 흘리기 좋은 유물이었다.

여하튼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항구로 가야 했고 그곳까지는 기차를 이용해야 했다.

최근 한 공중파의 인기프로그램에서 군산의 발산리 유물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곳에 1920년경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가 지은 별장이 있었는데 창고는 텅 비었지만 정원으로 쓰이던 곳에는 고려시대 석탑을 비롯해 부도, 문인석 등이 널려 있었다. 아마 그 유물들은 구마모토가 그곳에 '장식' 으로 세워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출항하는 배들의 거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군산이다. 철도를 이용해 경향각지에서 수탈한 문화재를 일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현재 용산역에 있는 코레일 철도회관 안 있는 연복사탑중창비도 그런 경우도 짐작된다. 연복사탑중창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공덕으로 재건된 개경의 연복사 오층불탑의 건립 내력을 담은 비석이다. 당시 용산은 개성을 오가던 경의선의 시발역이었다. 연복사탑중창비는 경의선을 타고 용산 철도구락부(鐵道俱樂部) 구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본으로 반출되지 않고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중창비의 행방은 묘연했다. 용산으로 옮겨졌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그 소재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비신이 훼손돼 그 실체를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런데 2012년 우연히 한 시민이 철도회관 앞을 지나다 발견한 이 중창비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 이 유물의 실체가 드러났다. 누구도 이게 유물인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내내 머물고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가지 못한 유물 중에는 아주 특이한 것도 하나 있다. 바로 전등사 철종이다. 사실 전등사의 철종은 송나라 유물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물자 조달 차원에서 중국 본토에서 공출해 인천 부평의 병기창에 옮겨 놓았는데 일본이 패망하자 극적으로 이 땅에 남게 된 것이다. 이 유물을 전등사에서 수습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 보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 문화재가 딱 두 점이 있다. 손기정 옹이 베를린올림픽을 제패하고 받은 고대 그리스의 청동제 투구, 그리고 전등사의 철종이다. 전등사 철종에는 만들어진 시기와 이유다 새겨져 있어 그 가치가 다른 유물에 비해 높다.

지금까지 용케 돌아오거나 넘어갈 뻔하다가 남은 유물이나 성보들 한둘을 살펴봤다. 이 땅에 살아남았건 남의 땅에서 지내고 있건 유물은 모두 하나씩의 사연은 있다. 남의 땅에 넘어가면서 사연을 하나 추가한 셈이다. 이제는 그런 유물들에 '돌아왔다' 는 사연을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겠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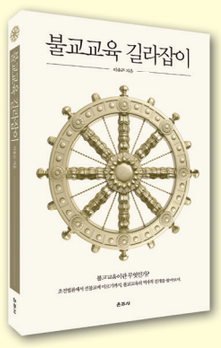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불교교육이란 무엇인가? 지금 왜 불교교육인가?

불교교육 길라잡이

서양 이론 중심의 교육학에 불교의 가르침과 교육 과정을 융합하여 '불교교육학'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이송곤 박사의 불교교육 개론서!
초전법륜에서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이송곤 지음/신국판/268쪽/값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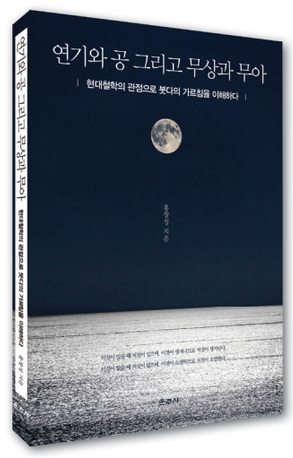
무엇이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가?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현대에 맞도록 불교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미네소타대학 철학과 홍창성 교수가
현대철학의 관점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펼쳐 보인다.

이 책은 불교철학서이다. 믿음이 아니라 이치를 따져 교리의 옳고 그름을 밝혀보겠다는 말이다. 불교가, 붓다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것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야 한다.



홍창성 지음/국판/216쪽/값 12,000원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금강경, 연기법으로 보아야 제대로 읽힌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은 금강경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
금강경은 존재의 실상을 깨닫도록 일러준다. 존재의 실상은 무상(공)이다. 연기법은 일체가 공임을 깨닫게 해준다.

백창우 지음/국판/184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